

장애인·노인 등 이용 '저상 버스' 추가 도입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어 타고 내리는 것이 편리한 '저상버스'가 추가 도입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내버스 이용이 편리해진다.

광주시는 18일 "올해 저상버스 10대를 추가로 도입, 32대로 확대·운영하는 등 장애인과 노인 등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저상버스를 매년 추가 도입,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10% 수준인 9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버스노선도 그동안 북구 일곡 28번 노선(살레시오~매월동)에서만 운행하던 것을 일곡 38번(살레시오~송산유원지)으로도 확대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학교, 재래시장, 종합복지관 등을 경유토록 했다.

저상버스 운행노선과 배차시간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노선안내 시스템'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버스 전면 표지판과 좌측 출입문에 '장애인 표시마크'가 부착돼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비산면지발생 사업장

5월 12일까지 일제단속

광주시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토사 채취장 등 비산면지 발생사업장 456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비산면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598곳의 사업장을 점검해 65곳을 적발, 사용중지 1·조치이행명령 4·개선명령 17·경고 43건 등의 조치를 하고 모두 6천57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디지털 컨버전스 구축 광주시 '전기·전자' 1위

광주시가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 구축 사업'이 2007년 산업자원부 평가에서 '전기·전자반도체 부문' 1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백색 생활가전 산업의 고부가가치 디지털가전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센터건립과 장비구축 등에 379억 원이 투입된다.

산자부는 개방형 연구실을 통한 기술지원, 디지털 생활가전의 특성화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는 연면적 6만6천㎡에 2개 동 지상 4층 규모로 올 10월 완공된다.

/김주정기자 jjnews@

충장로, 7월 젊음의 거리 선보인다

1~3가 야간경관 조명 등 1단계 리모델링 착수 우체국 앞 만남의 광장·청소년 문화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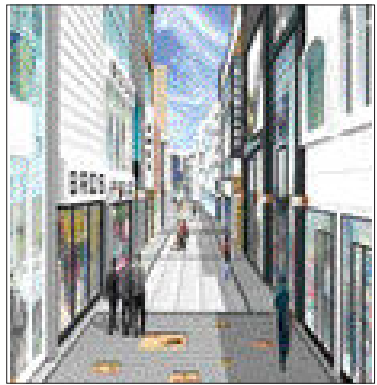
전남도청 이전 등 도심 공동화로 한 때 쇠락의 길을 걸던 '충장로'가 오는 7월 '낭만·젊음·문화'로 재무장한 소풍거리로 새모습을 선보인다.

광주시는 18일 2008년까지 모두 75억원을 들여 충장로를 리모델링하는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1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이날부터 충장로 1~3가(747

m)구간의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고 화강석을 바닥에 깔다. 또 충장로와 금남로를 연결하는 골목길 3곳은 점토 벽돌로 포장한다. 길 바닥에 LED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포근한 느낌을 주게 한다.

시는 특히 고싸움 놀이·노벨평화상 수상자 핸드프린팅·무등산 일석대·광주비엔날레 상징 등을 황동주



충장로 특화의 거리 준공 후 조감도.

물로 설치해 불거리를 조성한다. 우체국 앞은 공중전화기와 전기시

설을 치우고 벤치를 설치해 만남의 광장으로 변모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확충한다.

25억원이 투입되는 1단계 공사는 오는 6월 말까지 완공된다.

시는 시민과 상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 11시에서 다음날 오후 1시까지만 공사를 진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거 광주 제1의 소풍거리로 시민의 사랑을 받던 충장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광주의 정체성이 담긴 아름다운 거리로 리모델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방림동 금호~송림아파트 연결 방림터널 완전 개통

광주시 남구청이 방림동과 봉선동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방림터널이 지난 16일 개통됐다.

남구청은 지난 2003년 말부터 사업비 117억 원을 들여 방림동 금호아파트 입구~송림아파트(145m)를 연결하는 방림터널 개통공사를 해왔다.

방림터널은 최근 개통한 제1순환도로와 동여여고 간 도로(513m)도로와도 연결돼 이 일대 만성적인 출퇴근길 교통체증을 크게 해소하는 등 남구 일대 교통 소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시 남구 방림동 금호아파트와 송림아파트 145m 구간을 잇는 '방림터널'이 지난 16일 개통돼, 이 일대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도로개설 등 보상행정 '고객 감동'

광주시, 손실보상 협의 현장 찾아 업무 처리

광주시 건설관리부부가 도로개설을 비롯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 업무처리시 직원들이 직접 민원현장으로 달려가 보상해주는 '현장 출장 협의(보상)' 제도를 실시,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건설관리부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협의시 물건소유자가 사업시행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들에 한해 민원인이 원하는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협의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건설관리부부는 2006년부터 현지 출장 협의(보상)를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손실보상 대상자로 확대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과 원만한 손실보상협의로 사업의 조기착공에 크게 보탬이 됐다.

특히 올 1월 전국체전시설(정구장) 사업의 손실보상협의시 서울까지 직원들이 직접 가서 협의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100% 손실보상 협의를 마치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효녀가수' 현숙 孝사랑 홍보대사로

'효녀가수' 현숙이 효사랑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광주시 남구청은 지난 16일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효사랑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가수 현숙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현숙은 앞으로 효사랑 축제와 효사랑 전국마라톤대회, 효사랑 캠페인 등에 참석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남구청은 지난 2002년부터 효사랑사업을 시작해 효사랑 문화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교육사업과 브랜드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



하고 있다. 현숙은 "효는 한국 전통의 미풍양속으로 전승보전해야 할 가치다"며 "효가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작은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현숙은 연예활동 속에서도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20년이 넘도록 수발하고 있어 '효녀가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개나리 활짝... "봄이 왔어요" 18일 낮 최고기온이 12.7도를 기록,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가운데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문화예술회관' 앞길에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 광주시민들은 이날 가까운 공원이나 무등산을 찾아 봄꽃을 감상하며 '봄의 향연'을 즐겼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내' (Life Safety) and '신고' (New Information).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their contact numbers.

Advertisement for Clean Hospital and Biothys Korea. It features the text 'Clean Hospital' and 'Biothys Korea가 알려줍니다'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a food product, likely a type of bread or cake, with the text '흙흙대에도 격(格)이 있습니다' and '황토' (Yellow Earth). It includes an image of the product and contact details.